

# 문장완성검사에 나타난 대학생의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 및 표상

석류\*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 요 약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와 함께 부정적인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 현재,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잘 나타나지 않는 숨은 태도를 심층적으로 밝혀 대학생들이 가진 내면의 인식과 표상을 분석한다면, 비 태권도인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태권도에 대한 비전공 학생들과 태권도전공 학생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태권도의 이미지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탐구와 전문가집단 회의를 통해 문장완성 검사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적용결과 태권도의 내면의 인식에서는 전공생은 긍정정서, 정의, 일체화, 대표성, 가치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생은 대표성, 정의, 가치추구, 긍정정서, 일체화로 나타났으며, 태권도의 표상에서는 전공생은 의미, 수양, 상징성, 문화, 무관심, 건강, 스포츠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수양, 의미, 상징성, 무관심, 문화, 건강, 스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첫째 태권도가 가지는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지역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연구 결과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우려되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전공생들이 가진 태권도의 표상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진 생각과 인식을 보다 깊게 탐구하여 차세대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함을 물론, 태권도만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태권도, 문장완성검사, 내면의 인식, 표상

---

\* koku9@naver.com

## I. 서론

2018년 3월 30일, 국기태권도라는 휘호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사건(한혜진, 2018. 03. 30)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권도가 가지는 위상과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일문화로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무도스포츠와 올림픽의 경쟁스포츠로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으며(김태일, 2008), 정신이 포함된 군자의 무술로 단순한 싸움기술이 아닌 ‘교육’이며, 스포츠이다(곽정현, 조성균, 2016a; 김지혁, 구강본, 남중웅, 2016; 이원국, 1969). 또한,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한국만의 문화가 아닌 세계적 공유문화로 발전하고 있다(강은석, 곽정현, 이재돈, 2010).

이러한 가치에 힘입어 태권도 유품/단자는 국내 9,149,336명, 국외 1,402,896명, 총 10,552,555명(국기원, 2019. 11. 25)으로 수련과정의 유급자까지 생각한다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했었고 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태권도의 주 수련층은 유소년들로 구성되어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고(유동현, 정태성, 2017), 태권도 경기는 관람성이 떨어진다며(유동현, 2014) 올림픽 정식종목의 위치 또한 위협받고 있다. 겨루기는 발 펜싱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한혜진, 김수정, 2018), 역사적 분쟁으로 끊임없이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다(송형석, 이규형, 2008). 또한 언론매체에서는 제도와 인사 비리에 대한 뉴스를 써내기도 한다(한혜진, 2019).

태권도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가치와 더불어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과 정보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태권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태권도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단순히 아동중심의 수련, 태권도의 경기적 측면 등의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 아닌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태권도 인들이 아닌 대다수를 차지하는 태권도전공,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유관단체 등 태권도계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해 가지는 내면의 인식과 표상이 태권도의 미래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상이란 객관적인 이미지가 아닌 주관적인 이미지로 과거의 지각과 기억에 근거하여 마음이나 정서가 반영된 이미지가 언어 등의 매체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실체가 아닌 표현

된(表) 상(像, image)(박삼현, 2013)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의 심층적인 태도와 심리를 파악하는 투사법의 일종인 문장완성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는 상담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숨은 태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 방법(Munby, 1983)으로 상담현장만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고 연구되어왔다(권혜선, 남미리, 민아현, 현명주, 2015; 김효남, 고세환, 1995; 박령지, 조나원, 조혜정, 2015). 검사는 문장의 일부분을 제시하고 피험자가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로 진행(Merrell, 1999)되며, 이를 통해 피험자를 투사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극문과 함께 빈 공간을 제시하여 피험자가 빈 공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설문조사와 같이 주어진 외부의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혜선 등, 2015). 이에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가진 내면의 인식과 표상을 분석한다면, 비 태권도인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태권도에 대한 비전공 학생들과 태권도전공 학생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태권도의 이미지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 1. 문장완성검사

문장완성검사는 측정하려는 목적이나 내용, 대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집단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권혜선 등, 2015). 이에 연구참여자들의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 및 표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맞는 문장완성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검사지의 개발을 위해 태권도의 이미지와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문장완성검사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해 사람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이미지를 이끌어내기 적합한 자극문을 추출하여 연구참여자들을 투사(project)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추출

된 자극문은 ‘태권도란 \_\_\_\_\_.’와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제시된 자극문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태권도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 및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태권도전공자와 비전공자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태권도전공자란 국내 태권도학과 또는 태권도전공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총 117명이 참여하였고, 비전공자는 태권도학과 또는 태권도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와 전공을 가진 대학생으로 체육계열 전공자는 제외하고 총 172명이 참여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 구분 |     | 태권도전공 | 태권도 비전공 |
|----|-----|-------|---------|
| 성별 | 남자  | 63    | 103     |
|    | 여자  | 54    | 69      |
| 학년 | 1학년 | 44    | 101     |
|    | 2학년 | 35    | 45      |
|    | 3학년 | 25    | 19      |
|    | 4학년 | 13    | 7       |
| 총계 |     | 117   | 172     |

## 3. 조사 및 분석방법

태권도에 대한 사람들의 내면의 태도와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인과 함께 구조화된 문장완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수집된 학생들의 응답 내용은 모두 Microsoft 2016의 Excel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완성된 문장의 응답내용을 일단 긍정, 부정, 중립 문항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거나,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내용에서 투사되는 내재된 동기를 주관적,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을 취하였다(이윤주, 2013; 최순임, 2003).

분석은 전문가집단의 해석에 대한 반복적인 토의를 통해 분석(분류)의 방향을 재정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박령지 등, 2015), 응답한 내용 중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주요 용어들을 추출한 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용어들을 분류, 통합하는 1차 분류작업을 실시한 후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분류의 결과를 조정하고 상위의 테마를 결정하고 유사한 개념, 의미끼리 같은 그룹으로 묶는 방식을 취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상위빈도로 나타나는 개념과 속성, 특징들에 결과 해석의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 시 응답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의적 의미가 있는 등,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문장은 보다 명확한 결과를 위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4. 자료의 진실성

분석의 방법이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개인적 주관성과 편견을 배제하고 분석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였다. 소속된 전문가는 질적 분석법 중 하나인 귀납적 분석 방법에 훈련된 연구자로,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3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분석 과정 및 결과 해석 단계 등, 연구 절차마다 협의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및 진실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

대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의, 대표성, 가치추구, 일체화, 긍정정서로 분석되었다. 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긍정정서의 ‘멋짐’이 가장 많았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의 정의의 ‘운동’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있었다.

답변의 비율을 살펴보면, 긍정정서(36.79%), 정의(28.30%), 일체화(16.04%), 대표성(15.09%), 가치추구(3.77%) 순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생은 대표성(44.00%), 정의(40.67%), 가치추구(10.00%), 긍정정서(4.67%), 일체화(.67%)로 분석되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전공생의 경우 ‘멋짐’이 19.8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운동’, ‘전통무예’, ‘인생’의 응답이 공통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운동’이 26.00%로 가장 많은 인식이 있었고, 태권도의 ‘대표성’이 22.00%, 전통무예가 15.33%로 비전공생이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생은 자신이 전공하는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비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제3자로서 태권도가 가진 외현적 속성에 집중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2.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

| 범주         | 하위범주 | 내용   | 태권도전공    |        | 태권도 비전공  |        |
|------------|------|------|----------|--------|----------|--------|
|            |      |      | <i>n</i> | %      | <i>n</i> | %      |
| 태권도에 대한 개념 | 정의   | 건강   | 0        | .00%   | 1        | .67%   |
|            |      | 본질성  | 9        | 8.49%  | 5        | 3.33%  |
|            |      | 발차기  | 1        | .94%   | 6        | 4.00%  |
|            |      | 태권도  | 7        | 6.60%  | 0        | .00%   |
|            |      | 격투기  | 0        | .00%   | 3        | 2.00%  |
|            |      | 스포츠  | 2        | 1.89%  | 1        | .67%   |
|            |      | 운동   | 11       | 10.38% | 39       | 26.00% |
|            |      | 무예   | 0        | .00%   | 3        | 2.00%  |
|            |      | 겨루기  | 0        | .00%   | 2        | 1.33%  |
|            |      | 호신술  | 0        | .00%   | 1        | .67%   |
|            | 대표성  | 한국   | 1        | .94%   | 0        | .00%   |
|            |      | 국기   | 4        | 3.77%  | 5        | 3.33%  |
|            |      | 전통무예 | 11       | 10.38% | 23       | 15.33% |
|            |      | 대중성  | 0        | .00%   | 1        | .67%   |
|            |      | 대표성  | 0        | .00%   | 33       | 22.00% |
|            |      | 인지도  | 0        | .00%   | 1        | .67%   |
|            |      | 민족정신 | 0        | .00%   | 1        | .67%   |
|            |      | 브랜드  | 0        | .00%   | 2        | 1.33%  |

| 범주 | 하위범주 | 내용    | 태권도전공    |        | 태권도 비전공  |       |
|----|------|-------|----------|--------|----------|-------|
|    |      |       | <i>n</i> | %      | <i>n</i> | %     |
|    | 가치추구 | 예술    | 4        | 3.77%  | 3        | 2.00% |
|    |      | 예의/인성 | 0        | .00%   | 8        | 5.33% |
|    |      | 교육    | 0        | .00%   | 1        | .67%  |
|    |      | 사회성   | 0        | .00%   | 3        | 2.00% |
|    | 일체화  | 전공    | 5        | 4.72%  | 0        | .00%  |
|    |      | 비전    | 1        | .94%   | 0        | .00%  |
|    |      | 인생    | 11       | 10.38% | 1        | .67%  |
|    | 긍정정서 | 자랑    | 2        | 1.89%  | 3        | 2.00% |
|    |      | 멋짐    | 21       | 19.81% | 0        | .00%  |
|    |      | 즐거움   | 10       | 9.43%  | 1        | .67%  |
|    |      | 좋아함   | 6        | 5.66%  | 3        | 2.00% |
|    | 총계   |       | 106      | 100%   | 150      | 100%  |

## 2. 태권도에 대한 표상

대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표상을 탐색한 결과, 의미, 문화, 건강, 스포츠, 수양, 상징성, 무관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공생의 경우 수양의 ‘본질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의미의 ‘인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비율을 살펴보면, 전공생의 경우 의미(27.38%), 수양(23.80%), 상징성(20.23%), 문화(13.09%), 무관심(7.14%), 건강(5.95), 스포츠(2.38%)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수양(42.86%), 의미(18.17%), 상징성(12.33%), 무관심(9.74%), 문화(8.44%), 건강(7.14%), 스포츠(1.30%)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공생의 경우 ‘본질성’이 13.1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념(11.90%)’, ‘미학(10.71%)’로 나타났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수양의 ‘인성’이 31.17%로 가장 많았으며, 무관심이 9.74%, ‘건강’과 ‘미학’이 7.14%로 나타났다.

표상이 자신의 마음과 정서가 반영된 이미지가 언어라는 매체로서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전공생들은 태권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접하고 생각하게 되어 다양한 표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전공생들은 태권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내용 중 하나인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태권도에 대한 표상

| 범주         | 하위범주 | 내용   | 태권도전공 |        | 태권도 비전공 |        |
|------------|------|------|-------|--------|---------|--------|
|            |      |      | 빈도    | %      | 빈도      | %      |
| 태권도의<br>표상 | 의미   | 개념   | 2     | 2,38%  | 10      | 6,49%  |
|            |      | 본질성  | 11    | 13,10% | 9       | 5,84%  |
|            |      | 이념   | 10    | 11,90% | 9       | 5,84%  |
|            | 문화   | 미학   | 9     | 10,71% | 11      | 7,14%  |
|            |      | 문화   | 2     | 2,38%  | 2       | 1,30%  |
|            | 건강   | 건강   | 5     | 5,95%  | 11      | 7,14%  |
|            | 스포츠  | 스포츠  | 2     | 2,38%  | 2       | 1,30%  |
|            | 수양   | 자기수련 | 4     | 4,76%  | 2       | 1,30%  |
|            |      | 정신수련 | 6     | 7,14%  | 12      | 7,79%  |
|            |      | 도덕성  | 2     | 2,38%  | 4       | 2,60%  |
|            |      | 인성   | 8     | 9,52%  | 48      | 31,17% |
|            | 상징성  | 대표성  | 2     | 2,38%  | 8       | 5,19%  |
|            |      | 민족성  | 2     | 2,38%  | 8       | 5,19%  |
|            |      | 발전성  | 7     | 8,33%  | 3       | 1,95%  |
|            |      | 대중성  | 4     | 4,76%  | 0       | ,00%   |
|            |      | 홍보성  | 2     | 2,38%  | 0       | ,00%   |
|            | 무관심  | 무관심  | 6     | 7,14%  | 15      | 9,74%  |
|            | 총계   |      | 84    | 100%   | 154     | 100%   |

## IV. 논 의

### 1.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

대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의, 대표성, 가치추구, 일체화, 긍정정서로 분석되었다. 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긍정정서의 ‘멋짐’이 가장 많았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의 정의의 ‘운동’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있었다.



‘멋’이란 한국인의 미의식에 미친 아름다움의 일종으로 스포츠의 멋은 일종의 성취감(이학준, 1998)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멋에 대한 공통적 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가치 지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으며 평가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어(이민수, 1998; 이학준, 2004; 조치훈, 1996), 가장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학준(2004)은 스포츠의 멋을 독창성(스포츠의 행위의 창조적 표현), 예술성(스포츠의 미적 개념), 윤리성(스포츠의 윤리적 행위기준)으로 이야기하며 스포츠가 가진 ‘멋’, 즉 ‘멋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멋’ 중 예술성 즉 미적개념은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외재적인 ‘미’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태권도의 다양한 시범과 투기종목으로서의 강인함과 자신의 수련을 통해 단련되는 외현적 아름다움을 통해 ‘멋’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전공자들은 다년간 태권도를 수련하고 탐구해 오며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도전과 태권도 정수의 표현,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반복수련으로 인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체험 등을 통해 정신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내면적인 체험(임일혁, 2004)으로 다년간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들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체험을 느껴 태권도를 ‘멋지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 전공생의 경우 ‘운동’이 26%로 1/4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태권도의 외현적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으로 생각되며, 태권도를 다양한 다른 스포츠들과 동일선상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운동’이라고 답한 사람은 7명이며, 나머지 32명 중 6명은 좋은 운동, 그리고 나머지 26명은 멋진 운동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전공생 또한 태권도의 ‘멋’에 이끌린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태권도의 대표성으로 자세하게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운동’으로 답했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살펴볼 때, 태권도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이자 스포츠/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올림픽 정식종목 태권도가 채택되고 그동안 메달을 획득한 것과 2018년 3월 30일 태권도 진흥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국기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 등이 태권도 비전공자들에게 태권도가 가지는 한국 문화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표하는 ‘문화’이고 ‘스포츠/운동’이라는 부분에서 태권도의 무도적 속성보다는 문화와 경기적인 속성만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태권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도 비 태권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태권도’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전공생과 비전공생이 가지는 내면의 인식에 대한 차이는 태권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한다. 태권도전공생들은 기본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석류, 곽정현, 2019). 이러한 애정을 통해 태권도전공생들은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표출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며, 비전공생들은 태권도를 표면적인 것만을 생각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흥미로운 것은 태권도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언론매체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전공생도 비 전공생도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인 내면의 인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문장완성검사의 특성상 장황하게 다양한 정보를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인 것을 생각할 때, 태권도계의 부정적인 뉴스에도 대학생들이 가진 태권도의 내면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힘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2. 태권도에 대한 표상

대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표상을 탐색한 결과, 태권도전공자들은 의미의 ‘본질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전공생은 수양의 ‘인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태권도전공자들은 비록 본질성에 대한 응답이 많았지만, 최소 3년 이상 수련하고, 태권도 학과에 입학하여 다양한 분야와 이론으로 태권도를 접하게 되어 그 표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태권도학과는 80년대 초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약 100개의 태권도학과가 개설되고 현재는 65개의 과가 폐과되는 등 약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보였다(곽정현, 조성균, 2016b). 태권도학과와 개설 초기에는 실기과목만 태권도과목이고 이론과목은 체육학 과목에 불과하였으나(곽정현, 2005), 현재의 태권도학과는 정규 과정 뿐만이 아닌 선수단, 시범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겨루기, 품새, 시범 동아리의 활성화는 세계태권도한마당과 같은 대규모의 대회는 물론 지방의 아마추어대회에도 학과 학생들이 출전함으로써(박정호, 2017)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태권도를 접하고 익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학업이 태권도전공생들이 가지는 태권도에 대한 표상, 즉 마음속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고 겨루기, 품새, 시범과 같은 태권도를 표현하는 활동이 곧 태권도 그 자체며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전공자들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표상이 ‘인성(31.17%)’으로 전체의 1/3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의와 예절’, ‘인의예지’라고 응답했다. 이는 사회에서 태권도장에서 홍보하고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동기 수련경험에서 무도로서 태권도를 접하고 예의와 같은 교육을 통해 인성에 대한 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학부모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인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태권도는 그동안 ‘인성’교육에 힘써왔다. 태권도 수련의 인성적 가치(연제홍, 2013; David, 2013)는 물론, 인성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임태희, 2015), 태권도 인성의 구성개념(김동현, 김동수, 2016) 등 인성교육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비태권도전공자들이 가진 태권도의 표상이 ‘인성’인 ‘예의와 예절’이라는 부분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에 대한 비전공 학생들과 태권도전공 학생들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심층적인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태권도의 이미지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 수집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지역의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 117명과 태권도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학생들의 태권도에 대한 내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정의, 대표성, 가치추구, 일체화, 긍정정서로 분석되었으며, 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긍정정서의 ‘멋짐’이, 비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의 정의의 ‘운동’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태권도에 대한 표상의 경우, 의미, 문화, 건강, 스포츠, 수양, 상징성, 무관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공생의 경우 수양의 ‘본질성’이 가장 많았으며, 비전공생의 경우 의미의 ‘인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생도 비 전공생도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정적인 여론이 대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태권도 관련 기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태권도의 일반적인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태권도전공자들의 태권도에 대한 표상이 다양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양한 관점의 태권도를 마주한 전공자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태권도학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표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태권도전공생과 태권도 비전공생은 태권도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름이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인과 비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차이로도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경영전략, 홍보전략, 미래전략들을 생각할 때, 태권도인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태권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녹아들기 위해서는 비 태권도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태권도가 가지는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지역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구 결과 태권도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이 가진 태권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우려되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전공생들의 응답 중 인식은 ‘운동’, 표상은 ‘인성’에 많은 응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태권도는 사회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한 ‘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태권도전공생들이 인식하는 태권도는 ‘멋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표상에서는 다양하게 분포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넓은 범주에서 생각한다면 긍정인 결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태권도의 인식이 ‘멋진’이고 어떤 공통된 표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태권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거나 탐구해보지 않고 표면만을 인식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태권도전공생들이 가진 생각과 인식을 보다 깊게 탐구하여 차세대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함을 물론, 태권도만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은석, 광정현, 이재돈(2010). 해외진출 태권도전공자들의 진출동기와 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1), 23-37.
- 광정현(2005). **태권도의 학문적 방향모색을 위한 태권도학과 교육과정과 연구동향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광정현, 조성균(2016a). 태권도정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263-286.
- 광정현, 조성균(2016b). 태권도학의 발전을 위한 2세대 태권도학과의 역할. **한국체육과학회지**, 25(6), 13-24.
- 국기원(2019. 11. 25). **국기원 국내/해외 유품단자 현황**. 2019년 11월 26일 발췌, <http://kukkiwon.or.kr/front/kor/information/report.action>
- 권혜선, 남미리, 민아현, 현명주(2015).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알아본 에너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및 태도. **에너지기후변화교육**, 5(2), 79-90.
- 김동현, 김동수(2016). 태권도 인성 구성개념의 중요도 평가. **국기원 태권도연구**, 7(4), 195-213.
- 김지혁, 구강본, 남중웅(2016). 태권도(跆拳道), 그리고 무도스포츠 - 다양성과 정체성의 경계에서 -.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2), 167-185.
- 김태일(2008). WTF, ITF 태권도의 이질화 극복과 남, 북 태권도의 통합방안. **대한무도학회지**, 10(1), 89-102.
- 김효남, 고세환(1995). 문장 완성 검사에 의한 과학, 과학의 과정, 과학자에 대한 국민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태도조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15(1), 43-49.
- 박령지, 조나원, 조혜정 (2015). 소비자의 커피전문점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프랜차이즈와 독립점포 커피전문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12(3), 61-88.
- 박삼현(2013). 일본어 교과서와 '일본'표상: 제 4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2, 131-159.
- 박정호(2017). **태권도 교육과정 기준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석류, 광정현(2019). 나는 태권도를 왜 하는가?: 태권도전공생의 수련동기와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177-190.
- 송형석, 이규형(2008). 태권도 역사논쟁: 신전통주의의 수정주의 비판에 대한 역비판.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157-177.
- 연제홍(2013). 태권도 수련의 인성적 가치. **국기원 태권도연구**, 4(2), 125-143.
- 유동현(2014). 태권도 경기에 대한 비 수련층들의 인식 분석. **무예연구**, 8(1), 55-64.
- 유동현, 정태성(2017). 태권도장의 유소년 수련층 증가로 인한 심사제도의 문제점 고찰. **국기**

- 원 태권도연구, 8(4), 171-190.
- 이민수(1998). *멋의 본질과 군인의 멋*. 서울: 봉명.
- 이원국(1969). *태권도교범*. 서울: 진수당.
- 이윤주(2013). 문장완성검사에 나타난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부모화. *상담학연구*, 14(6), 3391-3407.
- 이학준(1998). 스포츠에서의 삼락: 패락, 희락 그리고 열락. *한국체육학회지*, 37(2), 9-18.
- 이학준(2004). 멋의 스포츠철학: 표현, 형태, 정신.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279-291.
- 임일혁(2004). *태권도 미학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임태희(2015). 태권도인성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수련효과.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71-95.
- 최순임(2003). *한 단어 사회성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유아의 사회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혜진(2018. 03. 30.). 태권도 국기(國技)제정...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 가결. 무카스. 2019년 11월 10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6188>
- 한혜진(2019. 03. 01.). 국기원 '정부' 특별검사 발표... '홍청망청' '제멋대로' 딱 걸려. 무카스. 2019년 11월 10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6670>
- 한혜진, 김수정(2018. 11. 14.). '관람형 태권도' 공식 첫 선... 재밌는 태권도 추구하지만?. 무카스. 2019년 11월 10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6524>
- David, J. H.(2013). 태권도 수련의 창의, 인성적 가치.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83-99.
- Merrell, K. W. (1999).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Munby, H.(1983). *An Investigation into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in Science Education*. ED.

## Internal Perceptions, Representations of Taekwondo in College Students in Sentence Completion Test

Seok, Ryu (Kyunghe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 Abstract

Sentence completion tests are a way to reveal attitudes that are not displayed in-depth and analyses made through them of the internal perceptions and representations that college students have can reveal the internal thoughts and feelings that people who do not do Taekwondo have about Taekwondo. At this,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in-depth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Taekwondo held by non-majoring students and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and they were analyzed to collect base material for research on Taekwondo image perceptions and improvements. For the study, sentence completion test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hrough literature exploration and expert group meetings and results showed that internal perceptions of Taekwondo appeared in the order of positive emotion(36.79%), justice(28.30%), unification(16.04%), representativeness(15.09%), and pursuing value(3.77%) for majors. With non-majors, it appeared in the order of representativeness(44.00%), justice (40.67%), pursuing value(10.00%), positive emotion(4.67%), and unification(,67%), and Taekwondo representations appeared in the order of meaning(27.38%), cultivation(23.80%), symbolism(20.23%), culture(13.9%), indifference(7.14%), health(5.95), and sports(2.38%) for majors and in the order of cultivation(42.86%), meaning(18.17%), symbolism(12.33%), indifference(9.74%), culture(8.44%), health(7.14%), and sports(1.30%) for non-majors.

Keywords: Taekwondo, sentence completion test, internal perceptions, representations